대한상공회의소 報 道 資 料	기업이 보는 미래유망산업 전망과 육성과제 조사
弘報室 : 6050-3601~5	이 자료는 2월 21일(수) 朝刊부터
문의 : 산업조사팀 손세원 팀장(6050-3471), 김현수 대리(6050-3474)	

매출액 500대기업 절반(55.6%), “우리업종은 미래유망산업 아니다”

- IT(75.0%)·자동차(70.8%), 유망산업에 근접한 반면, 식품(25.0%)·건설(17.0%)은 동떨어져
-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 경쟁력, 세계최고수준에 8.4년 뒤쳐져
- 대다수기업(88.3%),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FTA 등 대외개방 적극 추진해야

우리기업이 자기 업종의 미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상당수가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매출액 500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보는 미래유망산업 전망과 육성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업종이 미래유망산업’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44.4%로 미래유망산업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중(55.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기업들의 상당수가 미래유망산업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 창출에 밝지 못한 전망을 드리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1] 자사 업종의 미래유망산업 전망(%)

기업구분	미래유망산업이다	미래유망산업 아니다
Total	44.4	55.6
대기업	47.6	52.4
중소기업	18.2	81.8
식품	25.0	75.0
섬유	42.9	57.1
제지인쇄	30.0	70.0
석유화학	45.7	54.3
철강금속	36.7	63.3
기계	43.8	56.2
컴퓨터전자	53.3	46.7
영상음향통신	37.5	62.5
자동차	70.8	29.2
기타제조	28.0	72.0
유통물류서비스	45.3	54.7
정보통신서비스	75.0	25.0
금융보험서비스	55.6	44.4
운수서비스	73.9	26.1
기타서비스	50.0	50.0
건설업	17.0	83.0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현재 기업들이 미래유망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상당수(65.2%)의 기업들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의는 중소기업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 중 18.2%만이 “우리업종의 미래가 유망하다”고 밝힌 반면, 81.8%는 “미래유망산업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의 매출규모를 감안할 때, 전체 중소기업들의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전망은 이보다 더 어두울 것이라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83.0%)과 제조업(58.0%)이 서비스업(4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 분석해보면, 건설업(83.0%)과 식품업(75.0%), 시멘트·가스·유리 등 기타제조업(72.0%), 제지인쇄업(70.0%)에서 “미래유망산업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70% 이상이었다.

반면, 정보통신서비스업(75.0%)과 운수서비스업(73.9%)은 미래유망산업이라는 응답이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인식이 업종별로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자동차업종에서 70.8%의 기업이 자사의 업종이 미래유망산업이라고 답했다.

미래유망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종 자체가 유망분야가 아니다(59.8%)”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업종자체는 유망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미래유망산업으로 성장하긴 힘들다”는 답변도 21.0%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법·제도, 인력 등 인프라 미흡(11.2%)’ 등의 순이었다.(기타 8.0%)

한편, 자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해야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29.7%)’와 ‘컴퓨터·IT기기 제조(18.0%)’ 등 IT분야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통물류서비스(14.8%)’, ‘화학, 반도체 등 부품소재 제조(13.0%)’, ‘금융보험서비스(11.9%)’ 등의 순이었다.

국내기업들은 우리나라가 미래성장산업을 발굴할 때 ‘미래의 경제기여도(27.3%)’보다는 ‘현재의 경쟁력 수준(72.7%)’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쟁력 수준 중에서도 특히 ‘과학원천기술 수준(43.3%)’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경쟁국의 경쟁력 수준(38.9%)’, ‘국내기업의 현 경쟁력 수준(17.7%)’ 순이었다.

[표2]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수준

업종구분	경쟁력 수준	기술 격차
Total	70.8	8.4년
유통물류서비스업	70.4	8.7년
정보통신서비스업	72.1	8.0년
금융보험서비스업	68.6	8.8년
사업지원서비스업	69.3	8.5년
부품소재제조업(화학,반도체)	70.0	8.4년
운송장비제조업(자동차)	72.5	8.0년
전자기기제조업(TV,핸드폰)	70.1	8.4년
컴퓨터·IT기기 제조업	71.9	8.2년
건설업	70.5	11.2년
기타	62.5	11.2년

미래유망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관련, 최고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70.8’ 수준이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8.4년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제조업(72.5, 8.0년)과 정보통신서비스업(72.1, 8.0년), 컴퓨터·IT기기 제조업(71.9, 8.2년)의 경쟁력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 등과 같은 대외개방이 우리나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88.3%로 압도적으로 많았

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해외시장 선점(46.1%)', '유망산업위주로의 개편효과(32.6%)', '해외 선진기술 이전·협력(20.8%)' 등에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대외개방이 미래유망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11.7%의 기업들은 '국내시장 잠식(70.2%)'과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의 종속(19.1%)'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기술력 제고(33.7%)'와 '인프라 구축(26.1%)', '관련제도 개선(25.6%)' 등을 고르게 꼽아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력 제고' 부문에서는 '원천기술 확보(65.4%)'와 '세계혜택 등 R&D투자 유인(33.1%)'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기술유출 방지(1.5%)'에 대한 의견도 소수 있었다.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수한 R&D인력 양성·지원(38.1%)'과 '산학연협력 기반구축(23.8%)', '국제기술협력(23.8%)'이 필요하다고 꼽았고 '강력한 정책의지와 드라이브(14.3%)'가 부족하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공장·제품 인허가 절차(54.4%)'와 '기술평가·거래시스템(31.1%)'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주력 수출산업이 최근 글로벌화의 진전과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서서히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미래 산업의 육성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경쟁이 치열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등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06. 2. 5(월) ~ 2. 12(월)
- 조사대상: 국내 매출액 500대기업(403개사 응답, 회수율 80.6%)
- 조사방법: 전화, 팩스 병행